

로마서 강해 5 | 복음인가 종교인가

로마서 2:1-16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자체로 이미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모를 뿐 아니라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고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은 한 몸된 지체라고 말하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절)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2.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3.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라고 지적합니다(4절).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 바울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7-10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5.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를 축복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죄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며 세워줄 수 있을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축복하며 세우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일 설교 중에서 강조한 말씀

- 제퍼슨 베스트, “종교는 하라 하고, 예수님은 이루었다 하신다.”
- 종교는 눈 멀게 하고 예수님은 눈 뜨게 하신다.
-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